

현실 다루기

# 실천적인 영성을 일깨우는 버쭈 프로젝트

오승은 (버쭈 프로젝트 강사) 편역





운양에서 '그냥' 스님으로 통하는 덕진 스님을 종종 만나 뵙습니다. 스님은 '소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분으로 성문분석(聲紋分析)을 하시고, 소리가 좋은 오디오를 가지고 계시며, 북을 잘 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목소리로,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느냐는 바로 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나 자신이 되어갈 길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즉 분노에 못이겨 화를 내는 소리는 상대에게 독소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는 그런 소리를 내는 자신 안에서 더 크게 울리므로 스스로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정한 목소리는 자신에게 역시 다정한 느낌을 전하고 일깨우겠지요.

버추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버추(Virtue)란 덕성, 미덕이란 의미입니다. 미덕 하나 하나의 정의를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통찰력을 얻게 하며, 상대의 미덕을 보는 법, 말해주는 법을 제대로 안내하는 이 프로젝트는 상대의 미덕에 점을 맞추므로써 가장 크게는 자신에게서 그 덕성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왠지 약하게 느껴집니다만, '미덕을 갖춘 이는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 을 갖춘 강한 이로 느껴 집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가 실천적 영성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식상하고 따분할 것 같은 미덕이란 단어를 참신한 의미로 되살려낸 버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 자신의 아이를 미덕을 갖춘 리더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분, 상담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느껴지며 스스로를 살펴보기에도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어 관심있는 분들과 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버츄 프로젝트는 1991년 정신과 의사이자 시민운동가인 린다 케블린 포포프와 소아과 의사이자 종교학자인 단 포포프, 그리고 월트 디즈니 영상기술분야 예술감독인 존 케블린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들은 다수의 세계 종교 경전을 연구하여 약 360가지의 미덕이 언급되었음을 발견, 이를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적용 가능한 52개의 미덕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버츄 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 개념을 고안, 이를 통해 미덕을 체득하도록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버츄 프로젝트의 목적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고 인간 성장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버츄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철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간직 되어있는 가장 좋은 자질, 즉 여러 가지 미덕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각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미덕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 자질, 즉

실천적인 영성이 일깨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미덕의 구현자로 인식할 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자신도 스스로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미덕의 빛을 밝힐 수 있다. 왜냐면 미덕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높은 의식이 드러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버츄 프로젝트는 용서, 자비 등 각종 미덕 자체를 명상하는 전통적인 정신수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생활 자체의 영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보편 영성적인 측면이 버츄 프로젝트에 깃들어 있기에 2002년 뉴질랜드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버츄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추천사를 남겼다. “본인은 버츄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버츄 프로젝트는 사랑, 친절, 정의, 봉사과 같은 보편적인 덕목을 선양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1994년,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World Conference of Cities and Corporations〉이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를 후원한 유엔 사무국은 버츄

---

프로젝트를 ‘모든 문화권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구적(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전형’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지역 사회를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버추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풀뿌리 운동이 되어 2004년 현재 85개국에 전파되었다.

다음의 에피소드는 버추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린다 케버린 포포프의 이야기로 버추 프로젝트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시골 마을에서 두 어린 아들을 키우던 시절의 일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가끔 집안의 신조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내뱉어 나에게 큰 충격을 주곤 했다.

둘째 아이 크렉이 일학년이던 어느 날,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입에 담으며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상투적인 편견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크렉은 머리에 이가 득실거린다는 등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나열했다. “크렉, 하지만 존은 어떠니?” 존은 초콜릿 색 피부를 가진 크렉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에 대해 크렉은 여섯 살짜리 아이의 논리로 이렇게 말했다. “개는 빼고요.” 왜 존은 예외냐고 묻자, “제일 친한 친구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그 이후 크렉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에게 존경, 인내, 관용 등을 가르쳐야 하는 나의 책무는 한층 도전적인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덕들이 학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나는 큰 아이가 시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수업’을 받으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교실 분위

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 열린 수업은 그것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교실에는 그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없었다. 내가 그 교육의 현장을 참관하러 갔을 때,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내 아이는 교실 한 가운데 있었다. 소음은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컸다. 나는 내 아이와 이러한 무질서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러한 마음은 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해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청했다. 그는 낙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열린 수업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작으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반문했다. “어떻게 말입니까?” “훈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학급이 어느

반이지요?” 교장 선생님은 일학년 수업을 꼽았다. 그는 내가 정신과 전문의라는 것과 특히 어린이와 가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11시에 일학년 담임인 존슨이라는 여교사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아이들은 산만하고 분주했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한 작은 여자 아이가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올라타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키미, 제발 좀 그만 두어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였다. “매주 몇 시간씩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아주 다루기가 힘들거나 고집불통인 아이 다섯 명을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그 아이들을 몇 시간동안 맡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선생의 얼굴에 비쳤던 표정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 다섯 명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중엔 키

---

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도화지, 크레용, 건포도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학교로 갔다.

존슨 선생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차로 내 주위로 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단다. 선생님이 나와 같이 갈 아이들로 너희들을 뽑으셨어.” 그러자 아이들의 근심이 아주 조금은 덜어진 듯 했다. 아이들은 꺽충꺽충 뛰기도 하고, 어슬렁거리기도 하며 내 뒤를 따라 조그만 비품 보관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 둔대로 어린이용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다. “자, 앉거라.”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재빨리 그들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했다. 트로이는 무의식적으로 눈동자를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는게 신경 장애가 있는 듯 했다. 죠니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의자에 앉기는커

녕 그 위에 올라가 벽을 더듬으며 ‘벽타기’를 했다. 키미의 옷은 지저분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몸놀림도 매우 불안정했다. 그래서 혹시 학대받거나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레이몬드는 움직임이 둔했고 비만이었다. 티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키미와 죠니는 코카사스계였고, 트로이 그리고 레이몬드와 티미는 아프리카계 아이였다.

나는 아이들 앞바닥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에 대해 함께 배워볼 거란다. 바로 ‘존경’, ‘인내’, ‘자제’라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인 네 명의 아이들만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죠니는 여전히 의자 위에 서서 벽타기 자세로 서 있었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했다. 내가 말을 마칠 즈음, 죠니는 그 일에 싫증이 났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얘들아, 지금 죠니가



---

나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았지? 저 것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한 존경의 한 종류란다.” 순간 죠니는 어안이 빙빙해져서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앉았다. 죠니의 주의를 붙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수업은 우리들만의 비밀이 될 거야. 너희들이 존경, 인내, 자제, 이 세 가지를 배우고 나면, 그땐 너희가 너희반 친구들에게 그걸 가르쳐줄 수 있어.”

나는 매주 건포도와 팝콘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배워나갔다. 그에 대한 보상은 ‘자기 글자 먹기’였다. 그들은 많이 웃었고, 맛있게 먹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미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단순한 기술이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면 ‘동상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것을 배웠다. 그들은 이 ‘동상 놀이’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후에 뒤 따라 올 선생님의 지시에 대

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임을 이해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뛰어 오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한 손으론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론 하늘을 가리키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자제력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키미는 특히 마법의 존경 동그라미 훈련을 했다. 물리적 경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아이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에게 뛰어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키미에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모두 ‘마법의 동그라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마법의 동그라미’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임을 설명했다. 키미가 나와 다른 아이들에게 뛰어 오르지 않고 수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수업을 끝내며 키미를 오랫동안 포옹해 주었다. 나는 죠니가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자기통제 능력에 대해 각별한 칭찬을 해주었다. 그것은 미덕 훈련과 직결된 내용의

---

것이였다. 레이몬드는 특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탁월했으며 대단히 열정적이였다. 아이들은 모두 몇 주 안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 나는 브라운 부인으로부터 아이들이 ‘기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서신을 받았다.

학기가 끝날 즈음 다섯 명의 아이들은 존경, 인내, 자제의 미덕에 대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고 교실 안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오늘은 우리가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라고 레이몬드가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존경에 대해 가르쳐 줄거야.”라고 말하는 조니의 얼굴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르로이와 티미는 ‘왼손은 들고 오른손은 입에 대는 기술’을 시범해 보였다. 우리는 반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마법의 존경 동그라미 놀이’와 ‘동상 놀이’를 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자긍심으로 빛났고, 다른 아이들은 힘차게 박수를 쳐주었다. 학교는 미덕에 대한 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품행 변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자원봉사자들 덕택에 프로

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이 초기의 경험은 내게 희망을 주었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991년, 남편과 나,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설립한 버츄 프로젝트의 씨앗이 되었다.

### 미덕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의미의 운반체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품성을 형성시키고 자긍심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언어는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문화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미덕의 언어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좋은 자질이 발현되어 행동하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고귀한 품성을 빚어내기 위한 틀로써 미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사고의 방식이고, 기준 틀이며, 사람들이 그들이